



3면

'늘어나는 빈집문제, 실마리 찾다'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음 11월 11일) 제292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내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사업 추진

전북도, 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에 20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받아 4월 1일부터 지원...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가능

전북도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을 수도 있다. 바우처는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하면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는다. 전북도는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도 가능하다. 또한 출생신고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저출산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면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민의 특색있는 시책발굴과 도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먹이 찾기 위해 물 밖으로'

쌀쌀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3일 새벽 전주시 덕진구 유아동 이종교 일대의 아호천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공 대표 주산지 자존심 지켰다

농식품부 '국산콩 우수단지 선발대회' 서 대상·우수상 등 도내 생산단지가 휩쓸어 도, 내년부터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 참가한 전북도 생산단지 3개소가 대상(1개)과 우수상(2개)에 선정됐다. 이번 선발대회는 논콩 생산단지 및 지역간 수량 격차를 해소하고, 영농의욕을 고취해 체계적 성장 유인책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농식품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했다. 선정은 대상 1개 경영체, 우수상 3개 경영체, 장려상 5개 경영체로 전국 총 19개 신청 경영체 중 9개 경영체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대상(김제 석산한우영농조합법인)과 우수상(정읍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 김제 햇불영농조합법인)을 휩쓸었다. 특히 평가항목 중에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하는 수확량(100점 중 40점)에서 대상을 차지한 '석산한우영농조합법인'은 467kg/10a, 우수상을 차지한 녹두한우영농조합법인은 449kg을 수확해 선정 단지 9개 평균 수확량(394kg)대비 월등히 많은 수확량을 보여주며, 공주산지 자존심을 확실히 지켜냈다. 도는 공주산지 콩 육성 정책을 통해 논콩 재배면적이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 주산지로 성장했다. 지난 2018년 논콩 재배면적이 640ha로 전국 4.42% 대비 14.5%에 불과했던 도

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콩 육성 정책에 탄력을 받아 2020년에는 5,980ha까지 확대해 전국 1만780a 대비 58.3%를 차지했다. 또한 2020년부터 국가 공모사업으로 논콩 생산단지 교육·컨설팅은 81개소(지난해 45개소, 올해 36개소)에 24억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공동 시설·장비는 48개소(지난해 27개소, 올해 21개소)에 242억원, 콩 종합처리장 신축 등 4개소에 9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도 자체적으로는 지난해 2월에 '전라북도 우리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국산콩의 지원 근거를 마련, 매년 소규모 논콩 생산단지 7개소를 선발해 20억원 규모의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콩 재배농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2022년부터 공채종포 단지 70ha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논콩 재배 유도를 위해 4,500ha 규모의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요 식량작물 콩 육성에 부단히 노력을 했다. 이번 대회로 그 결과가 입증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면서 "지속적인 콩 육성 정책을 마련해 대표 주산지로써 콩 자급률 향상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배출업소 환경관리 '전국 1위'

환경부 '환경관리실태평가' 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군산시·장수군·순창군 부안군 등 기초 지자체 '우수'

점검을 비롯한 위반을 오염도 검사율 등 높게 평가

전라북도가 2021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13일 환경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6개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실시한 평가(20년 실적) 결과, 광역 1곳(전북) 최우수 지자체, 기초 25곳(군산, 장수, 순창, 부안 포함)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위안업무 관리·감독, ▲배출업소 협업관리 등 3개 분야, 8개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됐다. 특히, 도는 점검률을 비롯한 위반율, 오염도 검사율 및 홍보실적 부문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전북도가 모범적인 환경 행정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선도해가고 있음을 입증



전북도는 13일 환경부가 실시한 2021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해 보였다. 도는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으로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환경전문가의 기술지원 병행을 통해 배출업소가 자율적인 환경보호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과 2020년에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

지 걱정 없고 수질 걱정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무주 겨울을 열다

짜릿짜릿한 겨울
포근포근한 겨울
낭만가득한 겨울

무주에 오면 다 있습니다
무주를 열면 다 있습니다